

■ 서평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이 갖는 독자성과 특수성

—김병택 『한국문학과 풍토』(새미, 2002)

양 영 길*

|

현대를 일컬어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또 제주의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내걸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미개척지로서의 해석이 요구되는 타형형 지역이나 소우주 군집으로 이루어진 고립 사회형 지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어쩌면 세계화의 환상에 넘어 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화의 진폭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기에 바쁘다. 이를 두고 '얼빠기 효과'로 설명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이렇게 변화의 진폭이 넓고 깊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따라가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능동적이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문학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논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의 것을 찾아내고 키워내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 할 것이다.

* 문학박사, 한림고등학교 교사

이러한 노력은 역사에 대한 인식인 사관(史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하나의 철학적 물음이기 때문이다. 영국문학사를 서술했던 H. A. 테스가 종족, 환경, 시대를 문학사의 중요한 요소로 제창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족, 환경, 시대는 일반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지방화 시대를 열어 나가는 원리도 바로 이러한 독자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 문화와 역사의 토양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대중적 문화의 급격한 표준화로 말미암아 예술적 개성의 틀이 파괴되고, 문학 매체의 다변화로 말미암아 문화의 획일화가 촉진되어 지역문학의 독자성이나 특수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사 담당층의 구조 체계 자체에서도 지역문학을 경쟁력 있게 키워나갈 주체적인 힘으로서의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민족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김병택의 『한국문학과 풍토』는 이러한 지역문학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찾아 지역문학의 정체성 확립을 하고 민족문학의 인식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II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지역문학의 개념과 성격, 올바른 인식 방법, 지역문학 연구의 의의 등 지역문학 전반에 걸쳐 학제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저자는 “지역문학은 역사·지리·언어·민속·

가치관·공동체 의식 등을 통한, 지역의 이러한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일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지역문학사의 문학사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적극적인 이론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문학의 든든한 뿌리는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이론 구축으로 민족문학의 지평을 새로이 인식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의 저자가 ‘책머리’에 밝히고 있듯이 지역문학에 대하여 ‘지역문학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에서부터 지역문학사를 서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는 지속적으로 지역문학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문학의 존재방식과 그 전망」·「변방의 자연과 삶-제주시인들의 시 세계」(『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를 비롯해서 「제주 詩에 나타난 섬과 바다」(『바다와 섬의 문학과 인간』, 제주국제협의회 제 9회 학술회의의 1998. 7), 「제주 시인들의 시 세계(1)」·「제주 시인들의 시 세계(2)」(『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제주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제주작가』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9)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 책의 도처에서 강조된 지역문학의 중요성을 단순한 지역주의적 사고 방식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즉, 편협한 지역주의 또는 지역주의적 이기성 등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지역문학을 민족문학의 지평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용어인 지역문학의 ‘지역’성 속에는 향토성·전통성·민족성 등이 융합된 풍토성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지역문학사를 표층사가 아닌 심층사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문학사상(史像)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지역문학사는 통시성과 공시성을 바탕으로 그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사적 인식은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문학사적 인식은 문학 작품으로 창작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담당자들이 살았던 역사, 살고 있는 현실, 살아갈 전

망, 그리고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정서와 역사를 바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의 바탕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문학 작품으로 창작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창작 모티프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문학사 속에는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지역적 정신과 지역적 삶의 원리가 숨쉬고 있다. 민족문학사 서술의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이다.

III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지역문학의 현실과 미래, 제2부 역사와 현실의 변주, 제3부 시에 대한 몇 가지 물음, 제4부 주체적 문화를 위하여'가 그것이다.

'제1부 지역문학의 현실과 미래'에서는 "지역문학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민족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문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주 지역문학의 '근대성'과 '개념',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작품론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4·3소설', '4·3희곡' 등을 통하여 제주 지역문학의 독자성 확보와 특수성을 밝혀내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지역 구성원을 포함하는 민족의 외연이 결합될 때에 지역문학은 진정한 민족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4부 주체적 문화를 위하여'에서는 '영어 공용어화의 망상', '문화지표 조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제주문화' 등 제주 지역의 생동하는 문제를 골간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쟁점과 관련되는 적절한 대응은 지역문학의 활로를 모색하는 살아있는 문학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문학사를 거시 전망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지역문화사 인식의 첫 걸음은 지금까지의 인식 지평을 다시 한번 살펴서 참신한 시각과 도전적인 문제 의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즉, 지역 정서의 생태, 가치체계, 세계관, 세계 인식 방법, 질서원리, 정념 등의 여러 갈래와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여 그 변동 원리와 그 지역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밝혀낼 수 있어야 비로소 지역문화사상(像)을 인식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 지역문화사의 서술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의 대상은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는 환경, 역사적 배경, 사건 사고, 사회구조, 지역 정서, 사회심리, 사상적 배경과 그 구조, 시대 정신,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세계관과 가치관, 상권과 그 변천, 의식이나 이념의 변천, 사유 방식, 상상의 구조, 각종 통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론적 관점, 변천 과정, 정신사적 추적,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 등 그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모든 것이 제주 지역문화사의 서술 대상이 된다.

이 책 『한국문화과 풍토』 속에는 중앙의 문단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과와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에 젖어 있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생동하는 지역문화사의 쟁점들을 만날 수 있다. 지역문화사야말로 민족문화사의 근원이자 심층이 아니겠는가. 지역문화는 독자와 더불어 끊임없이 환류하면서 재생산에까지 이르러야 그 가치 지평을 확보하고 역동하는 문학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지역문화만이 안고 있는 절실한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민족문화의 지평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